

지역정서 반영 郷土性 있는 작품 기대

제3기 포천문예대학 개강식

포천문인협회(회장 이재욱)와 대진대학교 대학원(원장 박정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대진대학교, 포천예총이 후원해 마련하는 제3기포천문예대학이 지난 13일 오후 7시 대진대학교 대학원 2층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갔다.

이날 개강식에서 이재욱 포천문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는 향토작가 발굴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창작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대학에서 강의의 맡아주실 교수님들의 열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빈으로 참석한 홍을표 이해 조문학회 회장 등 축하를 통해 "문학이 가진 자의 사치품이 아니라 좀더 인간의 보편성,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포천문예대학 3기 출범을 축하드리고 문학적 성과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박정근 대진대학교 대학원장의 '시인이란 누구인가', 대진대학교 공명수 교수의 산문강좌로 인문학창조에 대한 특강이 3시간 동안 계속됐다.

한편, 제3기포천문예대학은 시와 산문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지역의 정서를 작품에 반영하는 향토성 있는 작품 발굴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기로 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대진대학교 대학원 209호실에서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6월15일까지 10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난 13일 포천문인협회의 대진대학교 대학원인 공동주최로 제3기 포천문예대학이 개강식을 갖고 강의에 들어갔다.(사진은 대진대학교 박정근 교수가 시장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韓國의 선비정신 · 28

한일합방 통탄해 자결한 매천 황현(梅泉 黃玟)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황현은 황희(黃喜)정승의 후손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약관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당시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교리(校理) 이건창(李健昌)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이름이 알려졌다.

고종때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나라가 혼란하고 정사도 어지러워 벼슬자리에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닫고 서울로 들어가지 않은 채 금공부에만 전념했다. 서울의 친한 벗들이 더러 그에게 편지를 보내 오랫동안 떠나있다고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번번히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벼슬아치가 되라 하고 나로 하여금 악마굴 속으로 들어가 귀신과 함께 미치광이가 되라고 하는가? 당시 문관들이 그와 교분을 맺고 싶었지만 그는 끝내 거절했다.

그 당시 개성에 살고 있던 친구 창강 김택영(滄江 金澤榮)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나라의 장래를 통탄하다가 관직을 버리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를 따라 가려 하였으나 가난한 살림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함께 떠날 수 없었다.

융희 4년(1910년) 마침내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併吞)하자 그는 비통해하며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절명시(絶命詩) 네 편을 짓고 제자들에게

록 하라." 그리고는 빙긋이 웃으며 동생에게 말했다. "죽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독약을 먹을 때 단번에 삼키지 못하고 입에서 뱀 것이 세 번이었다. 내가 이라도 어리석음을 줄어!" 마침내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56세였다.

황현(黃玟) 1855(철종6년)~1910년,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운경(雲卿), 호는 매천(梅泉). 청년시절 서울로 올라와 문명이 눈먼 강위(姜瑋), 이건창(李建昌), 김택영(金澤榮) 등과 사귀었다.

1883년(고종20년) 보거과(保舉科)에 응시 장원에 뽑혔으나 시골출신이라는 이유로 2등이 되자 부패를 실감하고 귀향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나라의 내정간섭과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하므로 벼슬을 포기하고 구례에서 작은 서재를 마련하고 학문과 시문에 열중하였다. 매천야록(梅泉野錄)과 오하기문(梧下記聞)을 남겼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통분을 금치 못하고 김택영과 국권회복운동을 벌이고 망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1910년 강제로 나라를 뺏기자 통분하여 절명시를 남기고 다량의 아편을 먹고 자결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됐다.

그가 주는 유서를 썼다. '나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할 만한 의리는 없다. 다만 이 나라가 5백년 동안 선비를 길렀는데 나라가 망한 날 선비 한사람도 죽지 않는다면 어찌 애물하지 않았는가? 나는 위로는 한결 같은 마음의 아름다움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 읽는 글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을 뿐이다. 아득히 오랜 집에서 깨어나 참으로 통쾌함을 깨달았으니 너희는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윽고 그는 유서를 쓴 후 독약(아편)을 먹었다.

이튿날 새벽 동생 황원(黃源)이 쓰러져 있는 형을 발견하였다. 그가 일으켜 세웠을 때는 이미 숨이 다하고 있었다.

동생이 급히 물었다. '무슨 할 말이 없습니까?' 그러자 황현은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내가 쓴 글을 보도

신안 내내 자강(自強)

동양 최고의 성공비법

중국 최고의 전략가 중국번(曾國藩)의 처세서 '자강'(自強)이 출간됐다.

'자강'은 성공이 절박한 화두가 되어버린 현대인에게 스스로 힘을 키우는데 동양 최고의 성공 지침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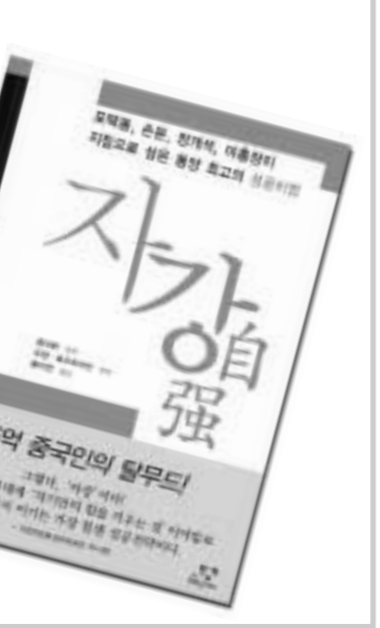
중국번은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고 양무운등을 주도한 청초 중흥의 일등 공신으로 당시 그의 막부는 전국 인재들의 집결지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 책은 당시 중국번이 이홍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들을 양성해내며 그들에게 전수한 처세 지침들과 평생을 통해 남긴 시문(詩文), 산소문, 일기, 서간문 등의 저작을 원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편지지는 정치 외교 군사 최고의 지휘자였던 중국번의 탁월한 전략 전술 중심의 일화들을 바탕으로 모두 12장의 큰 주제 아래 각 6개의 세부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발빠르게 대응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끝으로 7장 인재 기용 전략, 9장 애첩사담 다스리기 전략, 11장 뒷사람의 위엄을 다지는 전략은 인재 식별 및 양성 능력으로 특별한 주목을 끌어던 중국번이 제시하는 '성공 리더의 요건'들로, 한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반드시 새기고 새겨야 할 철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전 '중국번가서(曾國藩家書)'는 장개석이 부하들에게 반드시 읽어 보라고 선행하곤 했던 책으로 중국의 역사를 이끈 모택동, 손문, 이홍장 등이 지침서로 삼았고, 최근 북경에는 공작자나 화이트칼라들을 대상으로 중국번 사상을 강의하는 학원까지 생겨나는 등 중국번열(曾國藩熱)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중국번 지음/우장·호우하이빈 편저/황지연 옮김/출판사 문경) 박영민 기자 varanasise@naver.com



포천반월아트홀 5월 공연안내

'가정의 달' 어린이 공연 풍성

포천반월아트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창작극 흥부놀부



어린이날인 5월 5일(금) 오후 3시, 7시30분에 어린이 창작극 흥부놀부가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관람료는 A석 5천원, S석 7천원, R석 1만원으로 2005년 전통연희개발 전통연희회 공모에 심사위원 전원일치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근대 보기 드문 수작으로 알려져 있다.

▶피터와 늑대

5월19일(금)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에는 동화발레 피터와 늑대가 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서 공연된다.

관람료는 A석 6천원, S석 8천원, R석 1만원으로 피터와 그의 동물 친구들이 늑대를 혼내주는 모험 여행이 담긴 작품으로 클래식 음악 동화를 발레로 만나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예약문의 : 포천반월아트홀 031-538-2938 ~ 40 박영민 기자 varanasise@naver.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63)



단군(檀君)의 어린이 十誠命(십계명)

내 고향 포천에는 우리 겨레의 전통적인 어린이 재롱체조를 시키는 재미있는 관습이 있어 왔다. 단군의 십계명이다.

1. 부리부리(弗亞弗亞) : 손자의 허리를 잡고 좌우로 기우뎡하게 하며 '부리부리'라고 부르며 귀에 익혀준다.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고 '아'는 땅으로 내려온다는 뜻이다.

2. 시상시상(侍想侍想) : 어린이를 앉혀놓고 앞뒤로 흐르는 것으로 사람의 형상과 마음과 기백과 신체는 태극과 하늘, 땅에서 받은 것이므로 하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이다.

3. 도리도리(道理道理) :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 천지 만물

이 무궁한 도리로 생겨났다.

4. 지암지암(持蘭持蘭) : 양손을 뻗고 다섯 손가락을 폼뻗 쥐었다 하는 동작. 그윽하고 무궁한 진리는 창졸간에 알 수 없으니 두고두고 헤아려 깨달아라는 뜻이다.

5. 곤지곤지(坤地坤地) : 오른손 두 번째 인지 손가락으로 왼손바닥을 짚는 동작.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으면 천지간의 무궁한 진리를 알고 조화를 알게 된다는 뜻이다.

6. 심마심마(西摩西摩) : 앉았다 엎다를 겨드랑이 양쪽을 깨우고 시키는 동작. '따로따로'도 시키고 '꼬노꼬노'도 시키는데 골주세워 독립심으로 키우며 물질본

명의 서마도를 깨달아라는 뜻이다. 신 문명 서도(西道)

7. 어비어비(業非業非) : 하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진리는 창졸간에 알 수 없으니 두고두고 헤아려 깨달아라는 뜻이다.

8. 아함아함(亞含亞含) : 에헴이라고 함. 손으로 입을 쓰다듬어 내리며 소리내는 동작으로 천지간에 아군아제(亞君亞帝) 즉,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과 신을 모셔 접뵙어야 한다는 뜻이다.

9. 짝작궁 짝작궁(作作 作作) : 태극, 궁궁을 즉, 하늘에 오르고 땅으로 내리며 천지조화를 강조하고 신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깨달았으니 짝작궁 춤을 추어보자는 뜻이다.

10. 질라라비훗훗 : 팔을 휘휘 펴 흔들며 춤추는 동작으로 우주의 모든 이치를 갖추고 지기(地氣)를 받아 생긴 육신(肉身)을 활발히 하도록 춤을 즐겁게 추자는 뜻이다. 이토록 단군의 십계명은 단군 이래 내려오는 인간의 존엄성과 천지조화를 강조한 즐겁고 낙천적인 유아체조인 것이다. 요즈음 신세대 엄마들의 다리운동용 위주로 한 유아체조보다 훨씬 단계적이고 발전적 요소를 지닌 유아체조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다. 2천년 이전부터 한반도에 내려온 전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사상적 전통미가 돋보여 보인다.

내 고향 포천에도 오랜 옛날부터 어린이 십계명 유아체조가 내려왔음은 물론이다. 필자도 바로 소개한 유아체조를 하며 자랐으며 또 자식들에게도 시키며 살아왔다.

손자들들도 며느리들이 이 유아체조를 시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식들이 가르쳤을 것이라 믿어보기로 하자.

필자연락처 02-932-2434

따뜻한 인간사랑 실천하는 기타 연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 건설 앞장선다

포천시 문화예술봉사단 ②

소리여울 대표 임갑연



평소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적십자 회원으로 봉사활동 중에 만난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든 기타연주 단체 소리여울(대표 임갑연)은 포천에서 4년째 활동 중이다.

'소리여울'은 아름다운 기타연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인간애를 전달하는 봉사단체로 사회복지시설 나지마마을을 4년째 찾아가 이곳에 살고 있는 11명의 할머니들의 벗이 되어주곤 한다. 또 육군일동병영 환자들을 위한 위문공연은 물론 반월아트홀 삼지공연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연주실력을 선보이기도 한다.

동남중학교 어머니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임 대표는 "봉사단체

로 봉사하기 좋아하는 회원들이 모여 자비를 들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보다 멋진 연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있는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있다.

임 대표는 "소리여울의 공연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 밴드를 구성하여 올 가을 정기공연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실력향상을 위해 전문가 선생님을 초빙하고자 한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연주실력을 갈고 닦아서 올 가을에 시민들 앞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아울러 소리여울 공연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언제라도 연락하면 기꺼이 달려가서 공연을 하겠다"고 한다. 비록 프로는 아니지만 기타연주에 있어서는 프로 못지않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

연습실도 없이 아파트에서 연습을 하면서 소리여울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아름다운 정신으로 오늘도 소외된 이웃을 향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願國泰民安 (원국태민안)

萬民渴望泰平時(만민갈망태평시) 만민이 갈망하는 태평한 때에	天佑其情降瑞宜(천유기정강瑞宜) 하늘이 이 뜻을 도와서기를 바라네
團結真心邦本固(단결진심방본고) 단결하면 나라를 견고히 하는 근본이며	繁榮意慾自身知(번영의욕자신지) 번영 의욕은 자신이 알고 있네
出雲峰岨風初動(출운봉수풍초동) 출운 봉수하니 바람이 일고	播種田園雨欲施(보종전원우욕시) 전원에 파종하니 비 내리기를 기다리네
有備無憂康衢月(유비무우강구월) 유비무우한 태평한 거리에	合心總力發展期(합심총력발전기) 합심총력하여 발전을 기약하세

이창수 포천시 유도회 군내연 지부장

초대 詩

잠투정 하는 어둠을 밀어내며 창호지 밖에 먼동이 비치면

좋은 기운을 받은 대웅전에서 마음을 열어 놓고 번뇌 지우려 오체 투기를 해요

부처님 미소와 눈 맞추며 보이 차 마시면 마음이 따스하고 이마와 등에서 고뇌가 흐리며 별이 어둠을 깨뜨기 전에 절을 뒤로 해요

이주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전 이담문학회장